

남편 따라 목숨 끊은 진정한 순애보의 증거

[18 절부암] "쉽게 사랑했다 헤어지는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점 커"

데스크승인 2014.06.2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마을 중심을 낀 해안가에 있는 야트막한 절벽인 속칭 '영덕동산'.

차귀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절경인 데다 저녁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의 한 바위에는 160여 년 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품은 마애명이 새겨져 있다.

영덕동산의 울창한 상록수림에 있는 '節婦岩(절부암)'으로, 조선시대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烈女) 고씨의 절개를 기리는 곳이다. 이 마애명은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됐다.

때는 1852년 겨울. 강사철과 여인 고씨(18세)는 백년가약을 맺었다. 둘 모두 조실부모해 가난했지만 고기잡이와 품팔이 등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이듬해 겨울 농한기가 되자 여느 해처럼 강사철은 좌여은과 홍연득 등 동네 어른 2명을 따라 테우를 타고 대나무와 청초를 베러 대섬(차귀도)으로 떠났다. 동짓달 13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대나무를 싣고 돌아오던 테우는 그만 풍랑을 만나 뒤집혔고 배에 타고 있던 3명은 실종되고 말았다. 고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 시신을 찾기 위해 해안가를 헤매 다녔다. 날카로운 돌에 짚신이 헤어져 발에 피가 나면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을 만들어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사고 다음 날인 14일 좌여은의 시신이 해안에 떠올랐고 15일에는 머리 잘린 시체가 바닷가에 떠밀려왔다. 강사철과 홍연득의 키가 비슷한 탓에 누구 시신인지 분간되지 않았지만 옷을 보고 결국 홍씨의 시신으로 판명됐다.

남편 시체조차 찾지 못해 절망한 고씨는 그날 밤 영덕동산의 후박나무에 목을 매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고씨의 3일장이 치러진 마지막 날인 18일 강사철의 시신이 고씨가 자살한 언덕 바로 아래 수면에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중국 '조아의 포시'에 견줄 만한 감동적인 일이라고 칭송하며 부부의 시신을 거둬 당산봉 동쪽 비탈에 있던 이경보의 밭에 합장했다.

조아의 포시는 한(漢)나라 때 조아란 여인이 우강(盱江)에서 제를 지내다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 조간을 찾아 강물에 투신한 지 사흘 만에 부친 시신을 끌어안고 물 위로 떠올랐다는 고사다.

고씨의 사연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린 끝에 10여 년 후 관가(官家)에까지 전해졌다. 1866년 대정판관이던 신재우는 고씨의 정절에 탄복해 그녀가 목을 맨 영덕동산 바위에 '節婦岩'이라고 새겼다.

이 마애명은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전서체로 조각된 것으로, 감동 김응하가 글씨를 쓰고 동수 이팔근이 새겼다는 내용이 함께 새겨져 있다.

김태두 용수리장(57)은 "고씨 부인은 당시 여성의 지조·정절에 대한 억압으로 탄생한 열녀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목숨까지 버린 진정한 순애보의 주인공"이라며 "쉽게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이장은 "한때 연인들이 절부암에서 애정 행각을 벌일 경우 동티가 나 사랑이 깨진다는 속설도 전해졌다"면서도 "이 같은 내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절부암이 연인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다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